

2005 CJ 홈쇼핑 이웃사랑 캠페인

박영숙(본 재단 이사장)

CJ 홈쇼핑은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CJ 홈쇼핑 이웃사랑 캠페인>을 추진해오고 있다. 2005년도 캠페인은 한국여성재단과 함께 빈곤여성가장들의 질병을 치료하는 일을 돕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여성가장의 절대다수는 빈곤층에 속해 있다. 이들 여성가장들은 저임금, 비전문직, 비정규직이라는 삼중고의 직업과 소극적인 정부의 지원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만성적인 질환에 시달리고 있거나 긴급한 치료를 요하는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도 '차상위 계층'이라는 규제로 의료보호혜택에서 제외되어 이들이 겪는 고초는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이다. CJ 홈쇼핑이 이들에게 천사의 손길을 펼 것을 자청하고 나선 것이다.

이 캠페인은 5월부터 11월까지 6차에 걸쳐서 매월 마지막 토요일에 요금방송을 진행하게 된다. 현재까지 5월 28일과 6월 25일 2차에 걸친 캠페인에서 687명의 참여로 2억1천5백여 만원의 기부금이 누적되었다. 기부의 방식은 전화통화로 1회 또는 일정금액을 1년, 2년 또는 5년간 기부하기로 약정하고 그 약속을 이행해 나가는 것이다.

이 모금 방송의 특징은 전화다이어를 돌리기만 하면 되는 ARS와는 달리, 기부자의 사연을 들을 수 있다는데 있다. 어떤 기부자가 어떤 이유로 기부를 하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어서 캠페인의 감동을 배가하고 있다.

기부자 중에는 서민층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실직자, 여성가장 또는 소녀가장들도 있어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남의 딱한 사정을 더 잘 헤아린다는 인지상정을 느끼게 한다. 한 통화에 2000원 기부하는 것으로 잘 못 알고 전화했다는 여성가장의 죄스러워하는 목소리, 한번 밖에 못하는 데 괜찮으냐는 일용직 노동자 아저씨의 정어린 음성, 떠들거리는 한국어로 후원계좌를 물어오는 외국인 노동자와 같은 아픔을 안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인 아주머니와 여성가장인 어머니들의 사연들이 쌓이면서 각박한 우리 사회의 얼음장벽을 녹여주고 있다.

여성 질환을 앓고 있는 빈곤여성가장들을 돕겠다는 따뜻하고 훈훈한 정을 끌어 모으는 데에는 기부공간을 마련해 준 CJ 홈쇼핑과 모금방송에 기꺼이 참여하여 준 영화배우 문성근씨, 은혜산부인과 병원의 장부영 원장, 인기탤런트 정애리씨, 방송인인 문경훈씨를 비롯하여, 일시에 걸려온 40개의 전화통화를 받아준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휴일을 반납한 실무자들이 있어서 가능했다. 이들의 아쉬움은 보다 많은 전화회선이 확보되었더라면 하는 것이다.

재단이 기대하는 것은 이렇게 시작된 작은 노력이 앞으로 정부가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빈곤여성가장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정부가 혼자서 하기 어렵다면 민·관이 협력하여서라도 해내야 한다. CJ 홈쇼핑이 앞장선 것을 한국여성재단은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감사드린다.

여성재단과 함께 하는 <2005 CJ 이웃사랑 캠페인 '엄마에게 희망을'>을 통해 많은 여성들이 삶의 희망을 되찾기를 두 손 모아 빈다.